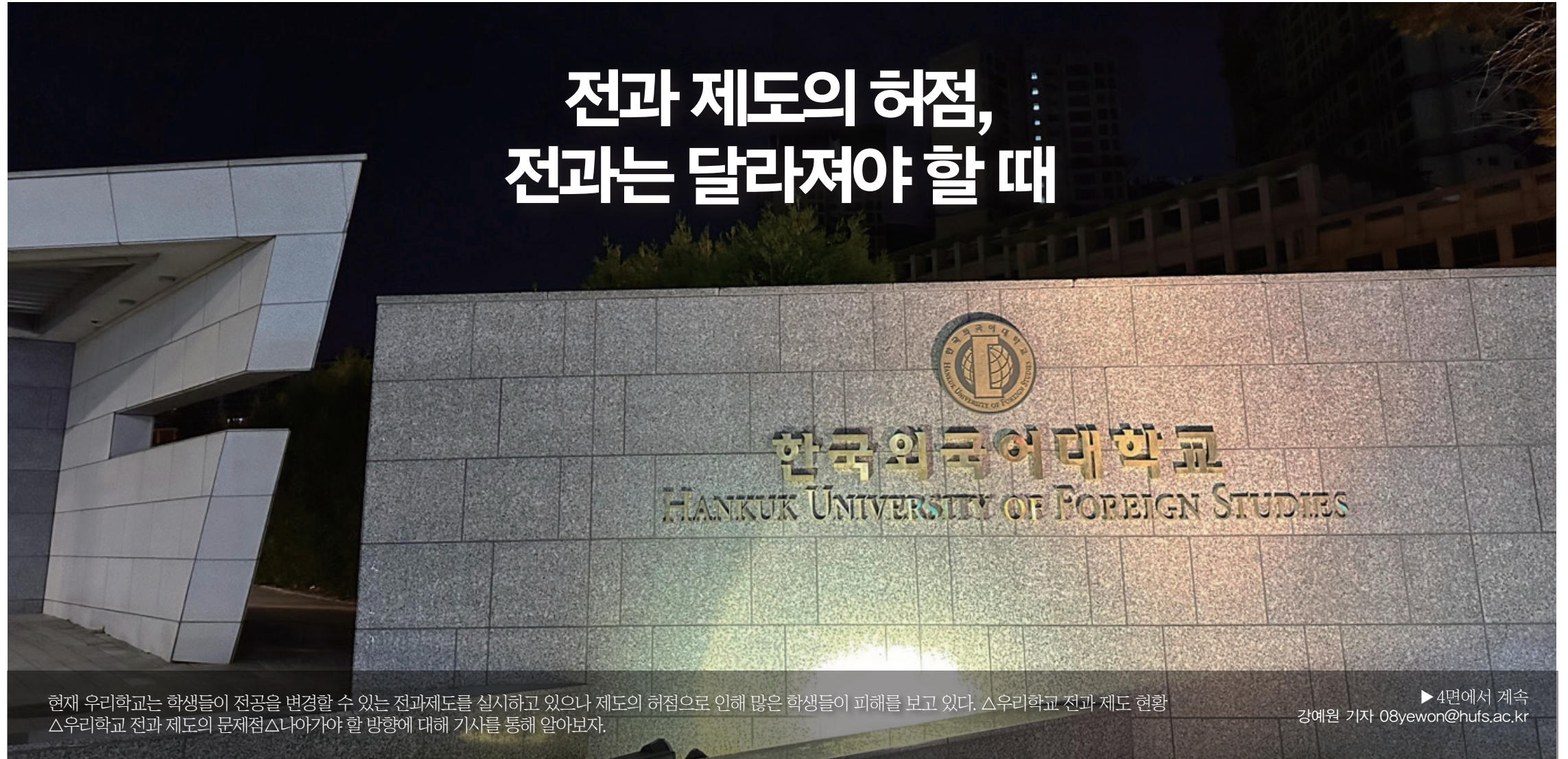


[기획] >> 4면
우리학교 전과 제도

[기획] >> 5면
신입생 환영 행사 해오름식

[사회] >> 8면
기후동행카드와 신규 교통 사업

[인물] >> 12면
임지웅 아나운서



현재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학교 전과 제도 현황
△우리학교 전과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3기 진로취업지원센터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11일 제3기 진로취업지원센터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 2022년부터 3기째 운영중인 '진로취업지원센터 서포터즈'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센터 인지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이번 3기 서포터즈는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임명식 및 OT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다수 기관과의 업무 협약△HUFS 글로벌 직무 박람회△HUFS 특강 등 여러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카드뉴스 제작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진로취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서포터즈의 역할을 충실히 마쳤다. 특히 인스타그램(Instagram) 홍보 영상은 누적 조회 수 약 5만 7,000회를 달성하기도 했다.

서포터즈 우수상을 수상한 김세빈(경영 23) 씨는 "모든 우리학교 학생이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활동을 시작했다"며 "센터 홍보를 넘어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두 배로 뿌듯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지연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성공적인 사회 일원이 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선발전 제4기 서포터즈의 활동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진로취업지원센터 인지도 향상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몰타 기사단 UN대표부와 파트너십 체결, '몰타 기사단 인턴십' 출범

지난 12일 우리학교는 뉴욕 주재 몰타 기사단 UN(United Nation) 대표부(이하 몰타 기사단)와 글로벌 인도주의 외교를 촉진하고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십(Partnership)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인턴십(Internship)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의 이번 파트너십은 세계 평화 및 상호 이해와 배려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몰타 기사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인도주의 실천에 의미 있는 기여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몰타 기사단은 종교적·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료 및 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상임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자격으로 UN과 함께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인턴십 기

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학교가 인도주의의 세계적인 상징인 몰타 기사단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귀중한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몰타 기사단의 인도주의 노력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폴 베레스포드-힐(Paul Beresford-Hill) 몰타 기사단 대사는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대학으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며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외교 분야의 미래 리더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한국외대의 유능한 학생들이 기사단의 오랜 전통인 인종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www.ekmtc.com

KMTCLINE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고려해운이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우리학교 SW 벤처스타트업 산학연네수 프로그램 개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학교 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원은 ‘SW(Software) 벤처스타트업 산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클라우드·AI·SW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이하 GCP) 및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이하 AWS)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아마존 코리아(Amazon Korea) 기업탐방 및 네트워킹△온라인 취·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GCP 기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해서 △GCP를 활용한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 실습△데이터 최적화 및 인공지능 원리의 이해와 실습△AWS 기반 기초 이론 및 실습△AWS를 활용한 미니 프로젝트를 마련됐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및 아마존 코리아를 방문해 △아키텍처(Architecture)△최신 트렌드△클라우드 기초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다. 이후 직무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들 (출처: 전라홍보팀)

학생들은 우리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살릴 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 소통하며 교육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세종 우리학교 AI 교육원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분야 산업의 규모 증가로 인해 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클라우드 기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전공실무 능력 향상과 취업 연계에 아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 대학에 최고 평가 및 최고 지원금액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학교는 이번 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프로젝트 기반 훈련 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향후 5년간 10만 명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한국 대중음악 역사 함께 쓰기’ 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지난 17일 ‘한국 대중음악 역사 함께 쓰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대중음악 아카이브(archive)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우리학교 대중음악 관련 △기억△인물△장소 등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 수집과 활용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최정윤 음악콘텐츠기업 일일공일팔 대표는 SBS 시사 다큐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동원 PD 및 ‘놀러와-씨시봉’ 특집을 집필한 김명정 작가 등과 함께 지난 15일에 폐관된 ‘학전’ 소극장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학전은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을 부른 김민기 대표가 1991년 3월 15일 대학로에 문을 연 공간이다. 배울 학(學)에 발 전(田)인 ‘학전(學田)’ 소극장은 지난 33년간 이름 그대로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못자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엔 △김아영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장△델리스파이스(delispice) 멤버 윤준호△박춘원 우리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이자 위즈메타(wizmeta) 대표이사△염혜경 영국 리버풀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 음악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

섰다.

이번 행사에 대해 노명환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은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중음악과 관련한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는지와 대중음악 제작과 수용의 역사를 어떻게 집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자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학생 상담·지도 우수 학과 및 교원 시상식 개최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달 26일과 이번 7일에 각각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교수회관 강연실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중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당 시상식에선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로 설캠의 이탑어과와 글캠의 산업경영공학과가 선정됐다. 교원 중엔 윤은경 설캠 이탑어과 교수와 최기석 글캠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각각 최우수 교수로 선정됐다. 우수교원으론 고태진 설캠 인도어과 교수와 장익범 글캠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서명교 설캠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와 최현희 글캠 한국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이지연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학과 지도교수와 의 상담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및 학업 몰입도 향상을 위한 진로 지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서 진행하는 1:1 진로 취업상담 등 통합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진로취업에 대한 커리어(career) 로드맵(road map)을 면밀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정경 글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지도교수들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하다”며 “이러한 소통은 대학 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을 위한 정서적 성장에도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신설, 미디어 융합 시대 창의인재 양성

지난 8일 우리학교는 특수대학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Global Media Communication)(이하 GMO)’을 개원했다. GMC는 지난 1978년에 창립된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미디어 산업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 예정이다. GMC는 △데이터·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Data·communication technology)△미디어 비즈니스·디지털 커머스(Media business·Digital commerce)△엔터테인먼트·K-컬처(Entertainment·K-culture) 등 세 개의 전공으로 구성돼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GMC는 △경력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직장인들의 전문성 및 리더십(Leadership) 배양△디지털 미디어 영역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식습득△산체제 직무 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4개 학기 과정인 GMC는 효율적인 학위과정 이수율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교육 시스템과 논문·비논문 트랙 과정을 운용한다.

이유나 GMC 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리더 양성을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 대학원 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미디어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영역을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GMC 대학원은 우리학교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전임 교수진과 더불어 업계 리더들을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해 우리학교 GMC 대학원의 후기 원서 접수는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 3. 20(수) 09:00 ~ 3. 27(수) 16:00	2024. 4. 30(화) 09:00 ~ 5. 7(화) 16:00
면접전형	2024. 4. 20(토) 10:00부터	2024. 6. 1(토) 10:00부터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접수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사—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8(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 전형)

▶ 2024년 후기입시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유의 사항
원서접수	2024.03.29(금)~2024.04.15(월)	대학원 홈페이지	-공통 제출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특별전형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서류제출	2024.03.29(금)~2024.04.15(월)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학처 11호)	-공통 제출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특별전형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고사장 발표	2024.04.24(수) 15:00 예정	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제출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특별전형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면접 전형	2024.04.27(토) 10:00 예정	해당 고사장	-공통 제출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특별전형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합격자 발표	2024.05.03(금) 15:00 예정	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제출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특별전형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방문 수령 가능
합격자 등록	2024.05.13(월)~2024.05.17(금)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맹점과 납부가능	-온라인 면접 시험 -합격자 확인

▶ 교육 특징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디어 산업이 요구하는 필수 역량을 형성시키는 전문대학원
- 계정하기 수강시 3가지 졸업 가능
-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병행
- 논문 트랙, 비논문 트랙, 추가학점 이수 트랙 졸업 선택 가능

▶ 모집학과 및 전공

-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Media Business & Digital Commerce)
- 데이터 ·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Data & Communication Technology)
- 엔터테인먼트 · K-컬처(Entertainment & K-Culture)

▶ 지원자격

-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는 접수일 기준 학위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우대

▶ 서류 심사 및 구술 면접

- 서류(30%), 구술면접(70%)

▶ 공통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대학 전학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학력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외국 국적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공지사항 참조

▶ 전형방법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지원자 유의 사항, 면접 장소 및 시간 확인
- 면접 시험, 응시
- 합격자 확인
- 합격자 등록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맹 계좌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온라인 면접자의 경우 면접 일정까지 공통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교학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자격 미달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장학금, 홍보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원우회 임원 장학금 지급
-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 확인한 후, 합격자인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모집 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TEL) 02-2173-3282 F)02-2173-3358
(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건물 1층 111호실

방치되는 학생 휴게실, 쾌적한 관리를 위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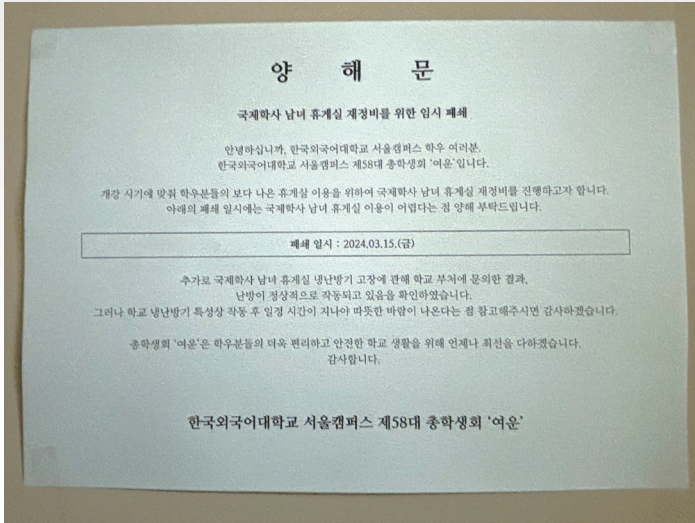
최근 학생들 사이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 휴게실이 방치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휴게실의 위생 상태가 점점 나빠지며 휴게실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설캠 학생 휴게실 관리 실태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설캠 학생 휴게실 관리 현황

우리학교 설캠 국제학사 2층과 3층엔 각각 여자 휴게실 및 수면실과 남자 휴게실이 자리잡고 있다. 남자 휴게실의 경우 학생들이 눕거나 앉아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소파와 가림막이 설치돼 있으며 여자 휴게실은 의자와 함께 여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구비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 휴게실이 방치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 휴게실에 대한 청소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먼저 여자 수면실과 휴게실은 현재 시설 관리를 이유로 잠시 폐쇄된 상태다. 또한 남자 휴게실의 경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등 잡동사니가 휴게실 바닥에 방치되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남자 휴게실의 경우 사용한 담요나 슬리퍼 등 휴게실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물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일본인 교환학생 마쯔가와 히나코 씨는 “지금은 폐쇄됐지만 예전엔 여자 휴게실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었다”며 여자 휴게실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여자 휴게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의자가 너무 적다”며 “여자 휴게실의 편의 물품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한상(LD 23) 씨는 또한 “남자 휴게실에 물건을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개인 물품은 물론 담요 같은 공용 물품도 사용한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휴게실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휴게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마재운(아



▲폐쇄된 여자 휴게실

시아-이란어 22) 씨는 “남자 휴게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며 “한번도 남자 휴게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 휴게실은 미흡한 관리와 더불어 학생들의 관심 또한 낮아 비효율적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현재 설캠 학생 휴게실의 경우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생 휴게실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에 총학은 학생 휴게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휴게실을 임시 폐쇄했다”며 “위생을 위해 음식 및 음료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휴게실에 개인 잡동사니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선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우분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자 휴게실의 부족한 편의시설과 관련해선 “현재 총학은 각도가 조절되는 소파를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학생들의 휴게실에 관한 낮은 관심도에 대해선 “학생 휴게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 총학은 휴게실의 이용률을 파악하는 등 더 나은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휴게실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학생 휴게실은 우리학교 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 공간이다. 학내 공간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 주체인 총학은 물론 휴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모두 노력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후속보도

해결되지 않는 전세사기,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권을 위해선

지난 1071호에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통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를 통해 청년들의 위협받는 주거권을 조명한 바 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최근 회기동 주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논란을 일으킨다. 이번엔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문제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

최근 회기동 주변에서 공부를 위해 자취방을 구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된 피해는 건물 주인의 가족인 김씨 일가가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이 계약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전세사기에 비해 그 규모와 피해면에서 심각하다. 김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의 수만 8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자 인당 최소 5,5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피해를 당한 대상이 주로 대학생과 같은 젊은 청년 세대이기에 피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것도 이번 사태의 쟁점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디딤돌 대출△부모님과 지인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까지 받을 정도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씨 일가의 사기 수법은 일명 강통전세라고 불린다. 김씨 일가는 은행에 근저당 대출을 받아 회기동 주변 건물을 매매 및 신축한 후 부동산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이렇듯 동대문구청 부동산과에선 김 씨 일가가 무리한 대출로 소유한 물건*이 130채나 조회됐다. 김씨 일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진행해 건물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후 수도세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경매에 넘겨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김씨 일가 중 윤 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윤 씨의 명의로 된 건물 역시 이번 전세사기에 이용됐다. 김씨 일가는 피해자들에게 윤

씨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윤 씨의 건물을 고령인 윤 씨 대신 그녀의 아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고심에 빠졌다. 이전에 김씨 일가에서 보여준 위임장의 효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의 윤 씨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상실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김씨 일가의 건물들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은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동산 경매 등의 요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그 효력이 발생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권리를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입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임대인이 확인해야 해지 요청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사안은 윤 씨의 건물이다. 최악의 경우 고령의 윤씨가 사망한 후 김씨 일가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시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없어 국고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후 세입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된다”며 “세입자가 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 관리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보증금을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이 과도한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담보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저당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회기동 주변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다. 증권사 출신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ShukaWorld)’는 전세사기에 대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기의 자금 축적 기간 중 수년을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사고 후유 장애를 남기는 전세사기는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박탈하고 경제권을 축소시켜 장차 노후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은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전세사기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할 것이다.

*물건: 물건(物件)은 유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전과 제도의 허점, 전과는 달라져야 할 때

우리학교 전과 제도는 학생들이 전공을 변경할 때 이용하는 제도로 학업과 진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전과 제도는 역설적으로 전과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가로막는다. 우리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전과 가능 인원이 적고 학과별로 전과 기준이 달라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 환경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과 제도 현황△전과 제도의 문제점△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전과 제도 현황

우리학교의 전과는 제한된 인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과 존치 학과 소속이 아닌 전과 희망자는 3개 학기 이상 재학하지 않은 2학년 진급 대상자 중 3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3.50 이상인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복수의 학과로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비사범대학 계열 학생은 사범대학 계열로 전과할 수 없고 LD(Language&Diplomacy) 및 LT(Language&Trade) 전공으로 전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전과 제도는 전출 과정 진행 후 전입 과정이 이뤄진다. 우선 원적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가 전출되며 해당학과의 전출 신청 인원이 전출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업 성적순으로 전출을 승인한다. 그 후 전과 과정이 진행되는데 전출이 승인된 학생들 중 전과 지원 학과 입학정원의 5%만이 전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입 과정에서 학과별로 서로 상이한 선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적과 일정한 학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과 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캠퍼스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전출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34명이며 전입에 실패한 학생은 61명이었다. 즉 159명의 전과 신청 학생 중 최종 64명의 학생이 전과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중 약 40%만이 전과에 성공한 것이다.

◆전과 제도의 문제점

우리학교 전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먼저 전과 가능 인원수가 제한적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우리학교는 전입 가능 인원을 입학정원의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전과 가능 인원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전출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허가하며 동일 캠퍼스 내 학과로의 전입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30% 내에서 허가한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는 전출 및 전입을 입학정원의 최대 20%로 허용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는 전입 및 전출 가능 인원을 입학정원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는 전입 및 전출 인원의 비율이 같으며 우리학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전과를 허가하고 있다.

전과하기 위한 학적 조건이 까다로운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학교는 전과 가능 학년을 2학년 진급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경희대△시립대△중앙대 등은 2,3학년 때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 학년 조건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과 가능 학년의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학생들은 4년 동안 배울 전공과목의 적합성을 1년 안에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1년의 동안 자신의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우리학교의 전입 전형이 학과별로 상이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학과들은 제각각 상이한 전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

개 △면접△서류△성적△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올해 기준 면접이 있는 학과는 △독일어과△스페인어과△영미문화문화학과 등이며 행정학과와 경영학과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경제학부△루마니아어과△프랑스어학부 등은 학과 성적만 보는 한편 경영학과와 EICC학과는 전과 시험을 치른다. 이처럼 학과별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에 학생들은 일관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학과의 전입 전형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학업 성적만 보는 학과로 전과한 A 씨는 “1학기 때 최소 전공 학점을 듣고 2학기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양만 들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만을 전입 기준으로 둔 학과로 전과한 B 씨의 경우 “전공이 잘 맞아서 전과 생각이 없었으나 평점 평균이 높아 도전했는데 전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공 적합성과 관계없이 학업 성적만으로 전과한 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반드시 원적학과의 전공 수업을 9학점 이상

◆나아가 할 방향

먼저 전과 기준을 완화한 다른 학교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한양대의 경우 2021년까지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2학년 학생만 전과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만 전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성적 기준 폐지△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전입 제한 확대△전과 가능 학년 제한 폐지 등 기존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과 제도를 개편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한양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신입생의 전과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전까진 해당 시행령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전과가 허용됐지만 이러한 구절이 삭제되며 학칙에 따라 입학 즉시 전공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모든 학년에서 전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모집 단계에서의 벽 허물기보다 재학생의 전과나 복수·융합전공 허용과 같은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 보장이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위해 제한적인 전과 제도의 변화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과 가능 인원을 확대하거나 전과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과 시 학과별로 일관된 평가 방법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선택의 폭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과 제도 기준이 완화될 시 우려되는 점 또한 존재한다. 일부 학과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거나 반대로 인원이 감소하게 된다면 학과 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한양대에서 전과 제도를 개편한 이후 전공생은 늘어났지만 수업의 정원은 변동이 없어 기존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됐다.

전과생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과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과나 전공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업 정원을 적절히 조정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과신청

신청년도

2024

신청학기

1학기

신청서식

Info00-1 인터넷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2024학년도 1학기 [2024/01/08 09:00:00~2024/01/09 15:01:00])

신청결과목록

No.	신청년도/학기	신청일자	신청학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처리사유	출력물
1	2024/1학기	2024/01/08	경영학전공	반려	2024/01/09	전출심사탈락	

유의사항

* 전과는 소정의 기간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 바랍니다.

전출 실패 화면

들어야하며 모든 학과의 전입 과정에서 지원사유 및 학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변경할 학과에 대한 관심△잠재력△학습동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전과한 학생들이 겪는 불편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전과를 하게 되면 원적학과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이 모두 자율선택 학점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전과한 학과의 전공학점을 2학년을 기점으로 다시 취득해야 한다. 원적학과는 이중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전과한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려대학교의 경우 원적학과가 전과 이후 변경 가능한 이중전공으로 자동 전환돼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캠퍼스로 전과한 학생들 중 ‘캠퍼스간 이중전공 제한 학과’로 이중전공을 배정받은 경우 해당 이중전공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별도의 이중전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논란의 해오름식, 제대로 떠오르기 위해선

새 학기를 맞아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환영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다음 달 예정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동유럽대학 신입생 환영 행사인 해오름식에 신입생들의 참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열린 일부 단과대학 해오름식에서 학생들의 출 공연이 필수였던 점과 행

사 관리를 맡은 학과별 조장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해오름식의 의미와 현황△해오름식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나아가 할 방향을 알아보자.

◆해오름식의 의미와 현황

해오름식이란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해오름’이란 뜻은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엔 신입생 환영 행사가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지속됐기에 해오름식이라고 불렸다. 해오름식은 단과대학별로 진행되기에 일정도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6~7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3~5시 경에 종료된다. 신입생들의 필수 참가 여부에 대한 지침은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신입생들의 해오름식 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동유럽대학 해오름식의 경우 행사 시간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오후 6~8시까지 진행됐으며 2부는 오후 8시~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학생회는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을 무작위로 섞어 조를 구성했으며 조별로 무대에서 약 10~15분 동안 공연할 수 있게 했다. 공연 참가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마술△인사△자기소개△춤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이 진행됐다.

지난해 행사에서 신입생들의 행사 참여는 자유로웠다. A(동유럽·폴란드어 23) 씨는 “신입생들의 참가를 강요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만약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해오름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동유럽대학 학생회 임원이었던 B 씨는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오후 10~11시쯤에 자유롭게 귀가했으며 처음 참가한 인원은 120명이었지만 오전 12시를 넘어선 시각엔 약 40~50명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대학 신입생 공지방엔 다음 달 열리는 해오름식에 신입생들의 필수 참가를 요구하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동유럽대학 학생회는 “신입생분들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라며 “만약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서는 저에게 불참 사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신입생의 필수 참석을 요구한 것과 불참 사유서를 제출도록 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학생회는 “학생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시 해오름식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우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되 강제하려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재공지했다.

◆해오름식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해오름식 필수참여 논란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 동유럽대학 학생회가 해오름식 참가와 관련해 신입생들에게 필수 참가를 요구한 공지가 담긴 사진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학교 재학생 의

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50개 이상의 좋아요와 47개의 댓글이 달리며 학생들의 많은 주목을 이끌었다. 또한 이번 해오름식과 관련된 에브리타임 게시글 23건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 반응(43%)△단순 질문(34%)△긍정적 반응(13%)△기타(10%)로 부정적 반응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다른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C 씨는 “신입생들이 해오름식 참가 공지에서 강제성을 느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어떤 이유라도 동유럽대학 학생회가 공지에 필참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분명 잘못이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해 다른 해오름식에 참가했던 D 씨는 “내게 해오름식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며 “해오름식에서 학과 사람



들과 장기자랑 공연을 준비하고 회식에 참여한 점이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동유럽대학 학생회 측은 “공적인 입장 표명은 이미 했다”며 학생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거절했다. 또한 학생회 측은 “이제서야 논란이 잠잠해지고 해오름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기사로 인해 소란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기사를 통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일단 이것으로 이번 신입생 필수 참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 외에도 해오름식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전반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조별 활동에 신경 써야 할 조장과 부조장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입생들이 방치됐다. 해오름식은 단과대학별로 진행되는데 이를 주관하는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과에 관계없이 단과대학 내의 모든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조를 구성한다. 이때 조장과 부조장은 대부분 학생회 임원이 맡으며 그 중엔 신입생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입생인 학생회 임원이 해오름식에서 부조장을 맡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통변역대학 해오름식에 참가한 학생회 임원 E 씨는 “조장이 자신의 학과에 눌러 가느라 신입생들의 인원 파악 및 위치 파악을 하지 않았고 행사가 끝난 후 뒤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학교는 조장과 부조장의 책임감을 강조해 신입생들의 위치 보고를 성실히 하며 행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학과 조장들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부재로 인해 해오름식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오름식은 단과대학별로 진행되기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행사에 포함돼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사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하지만 학과별로 공지사항이 달라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서로 다른 학과의 조장과 부조장이 행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학과별 모임에 참여하느라 상호 간의 소통이 미비해지기도 한다.

세 번째로 해오름식은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야 진행할 수 있는 단 점에서 신입생들의 참여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회로 하여금 신입생들이 가급적 행사에 참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나아가 할 방향

해오름식은 신입생이 맞이하는 학생 사회의 첫인상이다. 그렇기에 행사가 잘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향후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즐거운 해오름식을 위해 학생회뿐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다만 좋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기존 해오름식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오름식에 신입생의 참가를 강요해선 안 된다. 해오름식의 목적은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함이므로 그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환영식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신입생에게 참가를 강요해선 안 된다. 상황에 따라 권유는 강요가 될 수 있기에 공지사항에 ‘필수’와 같은 단어 사용은 지양해야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글캠 해오름식이 앞으로도 건전하고 즐겁게 진행되기 위해선 총학 구성 또한 시급하다. 글캠 총학의 부재가 지속됨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별로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이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 사이의 소통 부족과 조장 및 부조장의 신입생 통솔 부족이란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축제의 질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더욱이 이번엔 신입생 필수 참가 문제까지 불거진 점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 내에 글캠 총학이 구성돼 학생 자치가 정상화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몇몇 학생들이 특정 학생회를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의 좋은 의도에 집중하며 옹호하는 등 해오름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한 △비난△비판△옹호는 해오름식의 퇴보만을 가져올 것이다. 해오름식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해오름식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일이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건전한 신입생 환영 행사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지구 반대편 긍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살아남기

Bem vindo ao Brasil! 나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1년간 우리학교 7+1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 주의 캄피나스(Campinas)에 위치한 유니캄페(UNICAMP) 대학에서 공부했다. 7+1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학교 브라질학과에서 3년 동안 브라질의 △문화△언어△역사를 배우며 브라질 사람들과 포르투갈어로 대화하고 현지 문화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다.

브라질엔 다양한 거주 방식이 있는데 대학가에선 주로 우리나라의 원룸 같은 키치네치(kitnet) 또는 셰어하우스와 비슷한 펜시오나투(pensionato)와 헤뿌블리카(república)에서 생활한다. 나는 펜시오나투와 헤뿌블리카에서 살아 봤는데 특히 헤뿌블리카에선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티가 열려 홈 메이트(Home mate)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요리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어를 자주 사용하게 돼 언어 실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됐다.

유니캄페대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난 오후 5시까지만 수업을 듣고 그 이후는 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없는 날엔 유니캄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일몰을 보거나 축제에 갔고 브라질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관광명소 중에선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로 여행을 가 예수상과 셀라론 계단(Escadaria Selarón)을 보고 이과수폭포 아래에서 보트도 타며 상파울루(Sao Paulo)의 중심지(Avenida paulista)를 거닐었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도 숨겨진 명소들이 많았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랭소이스 사막(Lençóis Maranhenses)이

었다. 사막 모래 안에 커다랗게 있는 물웅덩이들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곳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언덕에서 구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역사가 있는 오루쁘레투(Ouro preto)에서 흑인 노예들이 일했던 금광을 봤던 것도 인상 깊었다. 브라질에 방문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여행해 보길 추천한다.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이 함

께 어울리며 각자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한편 길거리에서도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생각의 폭이 정말 많이 넓어졌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부촌인 알파빌리(Alphaville)와 빈민가인 파벨라(Pavela)의 빈부격차가 확연히 느껴질 때였다. 알파빌리는 자신들의 마을 둘레에 쇠창살과 높은 담을 쌓아두고 거주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다른 나라에도 빈부격차가 심각한 지역이 있지만 알파빌리와 파벨라처럼 그 대비가 심하게 느껴진 곳은 없었다.



그 외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혼자 살며 겪게 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긍정적인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경험은 내가 사회적 잣대와 편견을 깨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브라질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낸 1년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귀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박지원(국제지역 · 브라질 19)



영국

<조지 오웰의 1984>

- 언론과 매체의 가치란 -



저자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조지 오웰은 스코틀랜드 니아(Catalonia) 찬가스동물농장S1984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을 통해 감시사회와 권력의 남용을 다루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경고하는 그의 작품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영

향을 끼치고 있다.

그가 쓴 1984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담은 책으로 매우 암울한 사회상이 담겨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빅브라더(BIG BROTHER)’의 독재에 놓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Oceania)’에 살고 있다. ‘진리부’의 하급 당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열렬적으로 역사와 사실을 날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을 비롯한 당원들은 ‘텔레스크린(TeleScreen)’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들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는 다름 아닌 매체가 장악당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장악당한 대중 미디어는 ‘5분 증오’와 같은 요소를 통해 ‘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증오’를 유도한다. 신문은 매일 같이 당을 위해 조작된 정보만이 담겨 나온다. 혹여나 이를 의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 사회에서 지워버린다. 실제와 선동 간의 모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시민들은 당의 말마따나 2더하기 2가 5라면 5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소설 속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극단주의자들은 각종 ‘5분 증오’를 유튜브(YouTube)에 쏟아내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유도한다. 대중들은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해 상대방에게 증오를 토해낸다. 혹여나 이 현상을 의심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대중들 스스로 그 사람에게 증오를 퍼붓는다. 소설보다 더 암울한 풍경이다.

지금이라도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소설에서의 ‘당’이 우리 사회에도 등장할 것이다. 오세아니아가 우리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고민이 절실하다.

*디스토피아 : 현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3.29(금) ~ 04.12(금)	2024.05.10(금) ~ 05.24(금)
고사장 발표	2024.04.24(수) 15:00	2024.06.05(수) 15:00
면접전형	2024.04.27(토) 10:00 예정	2024.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05.02(목) 15:00	2024.06.2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05.13(월) ~ 05.17(금)	2024.06.24(월) ~ 06.2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논문 · 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 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4.08(월) ~ 04.17(수)	2024.05.20(월) ~ 05.29(수)
고사장 발표	04.24(수) 15:00	06.05(수) 15:00
면접전형	04.27(토) 10:00 예정	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9(목) 15:00	06.2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3(월) ~ 05.17(금)	06.24(월) ~ 06.2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글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증명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경정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초·중·고)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고교 수혜(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과(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청년층 위협하는 섭식장애, 그 이면의 외모지상주의

우리나라 섭식장애 환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321명이었던 섭식장애 환자는 2022년 1만 2,477명으로 49.9%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섭식장애 진료비 총액은 239억 7,247만 원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대다수가 청년층 및 청소년층 여성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사를 통해 △섭식장애의 정의와 현황△섭식장애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섭식장애의 정의와 현황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하 거식증)과 신경성 대식증(이하 폭식증)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사회적△생물학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섭식장애는 정서적인 영향이 큰 정신적 질환으로 자기 신체 불만족에 의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섭식장애 환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환자의 비율과 증가세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321명이었던 섭식장애 환자는 2022년 1만 2,477명으로 49.9% 증가했다.

그중 남성은 1,607명에서 2,351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여성은 6,714명에서 2022년 1만 1,268명으로 50.9% 증가했다. 이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배 많은 수치이며 연령대로 본다면 거식증 환자의 대다수인 84.9%가 10대부터 40대 여성이었다.

한편 2022년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비만율은 여성 25.7% 및 남성 47.7%로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2021년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9-29세 여성의 15.1%가 체질량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 상태였다. 그러나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임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은 46.0%에 달했다. 청년층 여성의 비만율이 현저히 낮은 나라임에도 정상 체중 이하 여성의 절반이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점과 여성의 섭식장애 환자 비율이 남성의 5배 이상 많은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에게 신체적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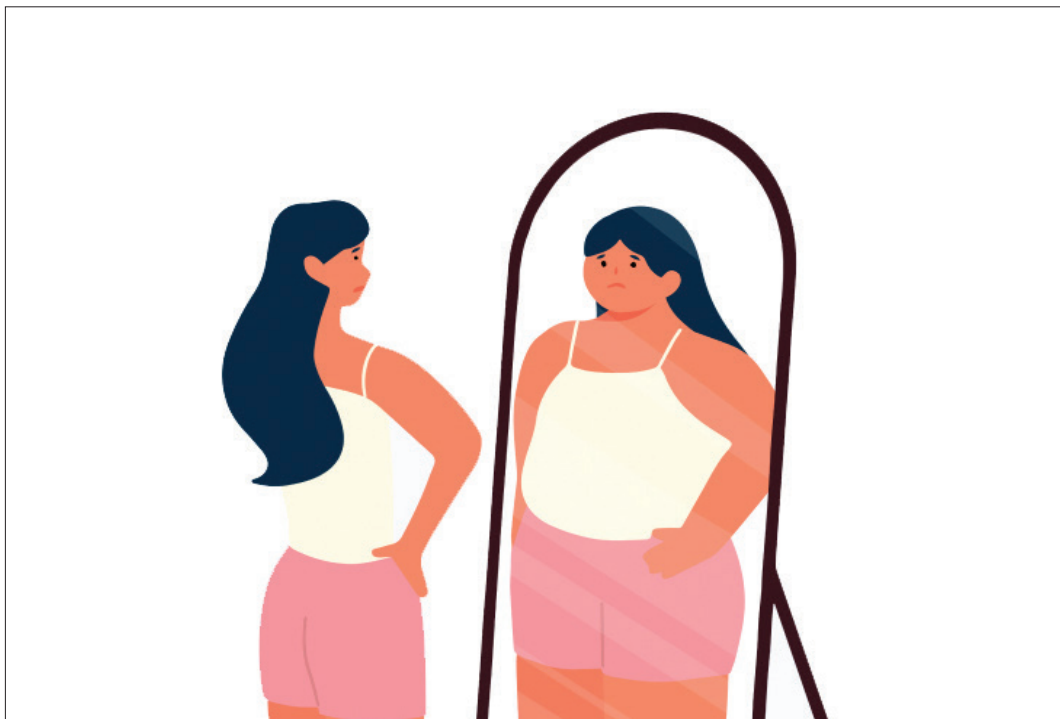
최근엔 섭식장애를 넘어선 ‘프로아나(Proana)’까지 등장했다. 프로아나는 찬성을 뜻하는 접두어 Pro-와 거식증을 뜻하는 Anorexia의 합성어로 마른 몸을 선망하며 거식증을 지향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X’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마른 몸매를 찬양하며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자극 사진들을 공유한다. 이러한 풍조를 중심으로 △개말라(매우 마름)△먹토(먹고 토하기)△무쥘(무식하게 쥘쥘 굶기)△키빼몸(키-125 몸무게가 목표)△빼말라(빼만 남게 마름)△썸빼(썸고 뺀기) 등 과도한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신조어도 확산되고 있다.

◆섭식장애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청년층 섭식장애 급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 불만족 정서는 근본적으로 외모지상주의에 기반한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여파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선망이 과한 다이어트 압박과 식이장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외모지상주의와 섭식장애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은 SNS다.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자신들의 일상을 볼수록 다수와 공유할 수 있게 돼 자신과 타인의 삶을 과도하게 비교하고 의식하며 외모지상주의가 심화된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주 콘텐츠(Contents)로 하는 SNS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시각 이미지의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Platform) 중 하나인 틱톡(TikTok) 사용자의 연령 비율은 18세-24세 36.7%, 25세-34세 32.6%이며 인스타그램(Instagram) 또한 18세-24세 30.8%, 25세-34세 30.3%

로 주요 SNS이용자의 60% 이상이 청년층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SNS 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다이어트 식단 공유△마른 체형의 유명인을 찬양하는 행위△바디 프로필(Body Profile) 촬영 유행△사진 보정 행위는 이상적 체형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확산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의 청년 세대도 △신문△잡지△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외모지상주의의 악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모지상주의 메시지를 주입받으며 자신의 모습을 대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청년층의 외모 압박과



▲출처: Peninsula Behavioral Health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섭식장애는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화될 경우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2021년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저체중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고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이며 그중 여성의 비율은 92.7%로 상당수의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 복용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약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섭식장애 관련 진료비 총액이 239억 7,247만 원에 달한 것으로 볼 때 의료비 지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섭식장애를 부추기는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것도 문제다.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없이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는 등 극단적 다이어트를 시도한 학생 수가 2015년 16.1%에서 2019년 22.6%로 급증했다. 즉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문화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음 세대로까지 심화된 채 확산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층의 섭식장애 증가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해결방안과 사

회구조적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선 먼저 의료적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섭식장애 환자들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남 의원)은 섭식장애에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 김율리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섭식장애는 조기에 개입한다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고 난치성 질환으로 바뀌게 된다”며 “섭식장애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거식증을 중증 난치성 질환에 포함시켜 산정특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일본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섭식장애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SNS의 역기능에 집중해 관련 미디어법을 신설하는 것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22년 영국에선 루크 에반스(Luke Evans) 보수당 하원 의원이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릴 때 사진 보정 유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루크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비현실적 모습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보정된 사진 등을 보여 섭식 장애를 겪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노르웨이에서도 인플루언서의 광고글엔 사진 보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마케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안 신설은 SNS 내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외모지상주의적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는 획일적인 미를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 개인이 자기 신체를 긍정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섭식장애 치료 과정에서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높이는 방법이 유의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SNS 내에서 내 몸 긍정주의 챌린지(Body Positive Challenge) 확산 등을 통해 개인이 자기자비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 신체를 긍정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적 체형을 선망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당연한 심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 섭식장애의 비정상적 증가와 프로아나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 풍조와 이상적 체형에 대한 선망이 그 수준을 넘어섰음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제 사회적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이상적 체형에 대한 과도한 찬양 및 홍보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청년층을 섭식장애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층을 위협하는 섭식장애와 그 이면의 외모지상주의를 직면하고 정책적·사회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신체 이미지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시민 부담과 탄소 배출을 모두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비용이 일반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으며 오는 7월 추가적으로 15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며 반발이 일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나 국토교통부의 'K-패스' 등 다양한 대중교

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및 검토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여러 문제점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근 공개된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시행 배경과 현황△교통비 사업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시행 배경과 현황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대중교통은 수조 원의 적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거치며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줄어든 반면 차량 소독 및 방역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지하철 약 9,200억 원, 버스 약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사는 광고나 병기역명 판매 및 상가 임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령화와 물가 상승이 진행되자 결국 서울시는 2015년 이후 8년간 동결했던 지하철과 버스 운임을 2023년 각각 150원과 300원 인상했으나 운임 인상 후 많은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1월 27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000원에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 이용권 포함 시 월 6만 5,000원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오 시장은)은 "대중교통의 불편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키는 정책 효과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선 기존에 시행되던 '알뜰교통카드'의 후신으로 K-패스를 공개했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비의 연이은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특히 청년과 서민층의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백승록 국토부 광역교통경제과장 또한 "교통비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도 보다 활성화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선 각각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를 공개했다. 월 60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되는 K-패스와 달리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이용액의 30% 환급 대상인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상향했다.

◆교통비 사업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되며 사업마다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조건과 혜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달마다 일정 금액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반면 K-패스는 마일리지 적립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각 제도의 조건과 혜택이 상이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사용 가능 노선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이다. 민영철도인 신분당선에선 이용이 불가하며 서해선에서도 김포공항역을 제외하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노선임에도 서울 외의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거나 승차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사용 가능 노선 및 구간의 확장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운 시군에만 시행하는 사업에 도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민 혜택 증진 차원에서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결국 경기도 도입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끊임없는 통합 노력을 기울여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임을 인상한 후 곧바로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은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3일에 시작됐다. 할인 정책을 시행할 예산으로 운임 인상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다음 달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한쪽에 선 요금을 올리고 한쪽에선 기후 문제를 내걸며 할인 정책을 만드는 게 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정 문제만 생각하면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할 수 없다"며 "기후동행카드는 재정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비를 할인하는 효과 외에 자가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등 부수적인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 혼잡을 더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241%로 승차 인원이 정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실신하는 승객들이 발생하는 등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해 혼잡만 더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이미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10월 오스트리아(Austria) 정부는 '기후티켓(KlimaTicket Ö)'을 출시했다. 연 1,095유로로 한화 약 159만 원에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지만 하루에 3유로 수준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은 '9유로 티켓(9-Euro-Ticket)'을 도입해 2022년 6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후 지난해 5월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을 도입했다. 도이칠란트 티켓은 월 49유로에 독일 전역의 단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볼커 비싱(Volker Wissing) 독일 디지털교통부 장관은 "도이칠란트 티켓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라며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 운송회사협회(VDV)에 따르면 독일은 9유로 티켓을 통해 이산화탄소 약 180만 톤가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독일 정부는 도이칠란트 티켓 제도에 연간 15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룩셈부르크(Luxembourg)는 2020년 3월부터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으며 헝가리(Hungary) 또한 '49유로 기후티켓' 판매를 시작하는 등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출시했으며 그 중 하나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출시 5일 만에 실물 카드만 10만 장이 넘게 팔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러 한계들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정식 출시 전까지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를 지키며 동행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지적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이하 조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22년 환자를 진료 중에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며 '피해자다움'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초등학교를 성폭행한 태권도 사범에 대해선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수 있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초등학교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회 악성 민원에 노출된 공무원들, 이어지는 사망 사건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주무관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항의성 민원을 계속하던 이들이 온라인에 신상까지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악의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20일엔 남양주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1월 남양주시청에 발령된 9급 공무원으로 휴대전화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이태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참고 넘어가는 동안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고 잔인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한 줄기 가격 아니냐" 때아닌 대파 가격 논쟁

지난 18일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방문했다. 물가 상황을 파악하고 고물가에 고통받는 민생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보고 한 말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대통령 방문에 파격 할인이나" 혹은 "한 단이 아닌 한 줄기 가격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나로마트는 윤 대통령 방문 전인 14일부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을 받아 대파 가격을 낮췄고 당일엔 농산물 할인 및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적용돼 875원에 판매한 것이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지원금이 더해져 진행되는 할인 행사로 대통령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제 '틱톡 금지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에서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짧은 동영상 올리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며 숏폼(short-form)의 확산을 선도한 플랫폼(platform)인 틱톡은 본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향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미국 하원이 틱톡 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당 하원의원은 "틱톡은 중국 공산당 지시에 따르는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기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저우서우쯔(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는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는 먼저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특히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침체, 그 이유와 전망은

지난달 28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이번 해 첫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매출액은 747억 원이며 전체 관객 수는 775만 명으로 전월 대비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당시 '서울의 봄'이 흥행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영화의 부활을 이끄는 듯했으나 '노랑: 죽음의 바다'의 흥행 성적이 예상보다 낮아 여전히 저조한 매출

액을 보였다. 이전의 '범죄도시' 시리즈와 이번 달에 개봉한 '파묘' 역시 흥행을 거두긴 했으나 전반적인 영화 산업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 산업의 침체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지연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정지연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Q1. 영진위에서 공개한 산업통계를 보면 2020년도를 기점으로 영화 산업의 매출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엔데믹(Endemic) 이후에도 영화 산업은 이전의 매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지속적인 침체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현상을 설명하자면 내부적으로는 △관람 문화의 변화△영화 산업 구조△콘텐츠(Contents)라는 세 가지 요인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뒤의 두 문제는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여겨졌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극장 및 플랫폼의 등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Q2. △범죄도시△서울의 봄△파묘와 같이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흥행한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침체된 지금의 상황이 영화 산업의 문제인지 영화 콘텐츠 자체적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입자적으로 근본적인 영화 산업 구조의 문제가 콘텐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영화산업에 등장한 대기업들은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 논리로 영화산업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장의 흥행과 매출만을 중시하는 이들은 영화가 흥행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바로 그 감독을 해고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감독들과는 달리 지금의 감독들은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데에도 막대한 경제 및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입해야 하며 콘티부터 영화 제작 과정까지 끊임없이 기업의 개입과 검열을 거쳐야 하죠. 따라서 과거 영화 산업과 달리 지금의 영화산업에선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감독들은 이미 과거에 성공한 영화를 모방하게 돼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화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답습의 반복은 영화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관객들이 영화를 보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창의적이고 흥미를 끌 만한 영화가 나오면 어김없이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하고자 합니다. 즉 영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콘텐츠의 참신함과 흥미를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1. 과거 영화 산업과 비교하셨는데 과거 영화 산업은 지금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990년대 후반 코리안 뉴웨이브(Korean Newwave)* 세대를 거치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던 시기에 김지운·오봉준·호홍상수 감독과 같이 현재에도 거장으로 평가받는 감독들이 등장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기획사 단위에서 제작이 이뤄진 당시 영화들은 자본보다 아이디어 기획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첫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작을 포함해 세 편 중 하나만 성공하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들은 흥행 성적이나 자본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영화들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Q3. 영화 산업이 침체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OTT(Over The Top)가 거론되고 하는데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 플랫폼(Platform) 서비스가 기존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과 경쟁 구도까지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와 제작 과정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단독

으로 개봉한 최초의 영화 ‘옥자’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별도의 검열과 기업의 개입 없이 오로지 예산을 지급하고 제작을 요청하는 과정만 거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독 입장에서 OTT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온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은 흥행 기록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거나 전적으로 공개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흥행 부진으로 인해 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제한받는 결과주의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Q4. 최근 유튜브(Youtube) 영화 요약 영상이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러한 요약 영상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요즘 유튜브에 기존의 영화는 물론 최근 상영 중인 영화까지 리뷰하는 채널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영화의 일부만을 잘라 요약하고 감상을 남기는 영상은 영화가 담고 있는 미장센(Mise En Scene)이나 주제 의식 같은 각종 표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Q5.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바뀐 점이 영화 산업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OTT나 영화 평론 유튜브 외에도 영화 관람의 양식을 바꾼 데에는 숏폼(Short form)의 영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20분 이상의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금방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관람 문화의 변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2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화를 느긋하게 바라보는 데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 영화 산업 전반의 위축을 야기합니다.

Q6. 일본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선언 이후 다시금 극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이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옛날엔 일본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부러워했습니다. 독점화 된 대기업이 없는 일본의 영화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와 유사

한 형태의 자주 영화**로 제작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영화와 달리 소규모의 제작비만으로 영화를 제작하기에 블록버스터(Blockbuster)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나 일본은 자주 영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자주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수반됩니다. 이 때문에 자주 영화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영화가 받는 지원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영화를 제작하기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자주 영화는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와 대기업 영화의 경계선에 절묘하게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과 철저한 제한으로 구성된 대기업 영화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조차 부재하지만 제한은 없는 독립 영화란 두 극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예산과 창작의 자유가 모두 충족되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 두 국가 간의 실질적인 차이로 여겨집니다..

Q7.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도 이전과 같은 극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편 영화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개인△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진위의 지원 혹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영화 창작 독려가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감독이 실험적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 준다면 보다 흥미로운 콘텐츠가 제작돼 다시금 사람들이 극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개인 단위에선 유튜브 요약 영상 시청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영상과 실제 영화의 차이를 인지하고 온전히 영화를 시청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장기적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리안 뉴웨이브(Korean Newwave):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후반 까지 우리나라 영화의 새로운 혁신을 지향하며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영화로 △ 개별 민족 영화로서의 우리나라 영화△이전 우리나라 영화와는 다른 변화된 영화소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의 대거 진출 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

****자주 영화:** 산업 영화가 아닌 일본의 모든 영화.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와 유사한 용어.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학군 후보생 혜택

✓ 특별한 경험

리더십 LP

해외연수 기회
(미 텍사스 A&M 대학연수 등)

국·내외 전사적지 견학

군사훈련
(공수·사격 등)

✓ 경제적 혜택

단기복무 장려금

대학별 기숙사 제공
* 대학별 상이

구분	훈련비	교보재비	학군생활 지원금
3학년	125만 원	81만 원	180만 원
4학년	137.5만 원		

자기계발비 지원

각종 장학금 지원
* 대학별 상이

내 삶의 리더이자 특별한 미래를 꿈꾸는 이를 위한 앞서는 선택,

ROTC

임관 시 혜택

장기복무자
자기계발 기회제공

전공과 연계된 근무기회

군속소 지원

군 복지시설 이용 혜택
* 군병원, 휴양시설, PX 등

인적 네트워크

창의와 질서 선택
책임과 명예 헌신
호국의간성 노력
정리정돈 태도
정신문화 존중
24만 ROTC 동문
다양한 사람들 ROTCian 군대 소통
경험 청년 공경치
국가와 민족 도전
성장 장교 합력 공적인가치
문화 장교 교육 리더십
기대감 교육 주도적인 삶 가치연계



학보는 은하수 다방에서

다방이란 어떤 공간인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방은 답소와 정이 공존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학보란 어떤 공간인가? 서포에 대한 관심사 공유는 물론 우리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 래선지 학보사실에서 함께 밤을 새며 마감하는 날엔 그곳이 하나의 작은 다방과 같은 생각이 든다.

처음 학보사에 들어왔을 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언론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전공과 무관한 영역이었고 특히 필력이 좋은 동기들로 인해 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컸다. 그들이 찾아오는 제안서 주제에 비해 내 제안서는 초라해 보였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힘들었고 생전 해보지 못한 글의 짜지 구성을 잡아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지난 1년간 단과대학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며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혹여나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실제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이른바 외대학보식 서술에 적응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왜 반점 사용을 지양하는지 그리고 '라는' 기호는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묻고 싶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고 교재를 정독할수록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거북이 같은 속도로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당장의 성과에 기빠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으며 조금씩 경험치를 쌓아가는 이 순간은 내게 큰 영광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마감이 끝난 뒤에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큰 용기로 바뀌었다. 학교의 문제를 직접 취재하고 내 문장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친 내 삶에 또 다른 활력소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내 기사가 실린 학보를 읽은 후 지인들이 보인 긍정적인 반응은 나를 칭찬에 기빠 충추는 고래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흑자는 격주에 한 번씩 밤을 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지 물어본다.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내 문장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활동이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한 편의 기사는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와 같은 단순한 맛이 아닌 천천히 오랜 시간 추출한 콜드브루 커피(Cold brew Coffee)의 진한 맛이 난다. 다른 동기들의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매주 다양한 학내 사건과 사회문화 주제를 다루며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각자의 기량을 뽐낸다. 각 기사들이 풍기는 진하고 향긋한 냄새가 한때 어우러질 때 학보는 다방이 된다.

이제 세 번째 조판을 앞둔 나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였다'를 '했다'로 바꾸는 것이나 기사에 사건을 배치하는 등 고쳐야 할 습관은 차고 넘친다. 여전히 들여쓰기나 문장부호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제안서 주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옛말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나에게 천부적인 글 쓰기 능력은 없다. 오로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느리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며 학보에 맞는 기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



이승원 기자

[책 '멋진 신세계'를 읽고] 복생어미(福生於微)

세간엔 △빈부격차△전쟁△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최근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Corona Blue)'란 우울증 증세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반 이상향 소설인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선 우울증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소마(Soma)'라는 약을 먹는 모습이 묘사된다. 소마는 지금 당장의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고 행복감을 일으키는 약물로 묘사된다. 작중 문명인들은 여흥을 즐기고 싶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어김없이 소마를 삼킨다.

멋진 신세계에선 안정을 위해 정형화된 형태의 사람들을 육성하고 일률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인간을 모두 5개 등급의 유형으로만 한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특성을 말살한 것이다. 이러한 통제 목적은 되도록 예외와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속에서 인간은 필요한 요소들만 주입받은 채 인간다움의 필수 요소인 주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무질서한 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입한 아반인이 그들을 향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 한다고 소리치는 걸 보면 언뜻 완벽한 사회로 보이는 멋진 신세계가 사실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멋진 신세계를 읽기 전에 행복이란 역설적으로 불행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드시 불행한 상황이 지나야만 행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복이 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암울한 시기를 딛고 일어설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이 생각은 더욱 견고해졌다. 불행이나 슬픔이 영원히 부재한 상태를 행복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진실으로 그 상태에 감사하며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어렵다. 난 앞으로도 주어진 상황이 불행하다면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아닌 진정한 행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현대 사회엔 소마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무력함△지루함△짜증을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는다. 스마트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태함에 빠져든다. 누군가는 출퇴근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합리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출퇴근의 지루함을 피하려고 애쓰는 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소마라는 알약에 의지하며 자유가 통제된 인간과 통제된 행복에 길들여진 문명사회의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쳤다. '과연 행복이라는 가치가 통제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는 채로 만족하는 삶이 과연 행복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 그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멋진 신세계의 모습은 올더스 헉슬리가 묘사한 것과는 더욱 정반대인 것 같다는 걸 느낀다.

장휘영 기자 07hwoo@hufs.ac.kr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것의 아름다움

사랑을 그저 추억으로 두지 않고 온전히 간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결국 모든 순간들은 빛바랜 추억이 된다. 하지만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정원'과 '다림'은 빛바랜 추억이 아닌 생생한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정원이 시골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잔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날 다림이 사진관에 불쑥 나타난다.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정원의 자상함과 미소에 반한 것일까. 다림은 사진을 인화하려 왔지만 사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원과의 대화에 빠져든다. 이후 다림은 정원의 사진관을 자주 찾아온다. 서로의 사랑이 조금씩 커질 무렵 정원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죽음이 억울할 만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남은 삶을 살아간다. 연로하신 아버지께 TV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사진기 작동법을 종이에 적어놓는 등 그는 자신이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그는 다림이 마음에 걸린다.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다림을 그리워한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다림은 정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얼마 후 정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다. 계절은 가을로 바뀌고 다림은 닫힌 사진관 앞에서 하염없이 정원을 기다린다. 이후 정원은 병원에서 나와 다림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적어 다림의 사진과 함께

상자에 넣어놓고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고 다림은 사진관의 유리창 안으로 자신의 사진이 걸린 것을 발견하며 행복과 추억이 담긴 미소를 짓는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언젠가 추억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영화 속 정원은 다림과의 사랑이 단순한 추억이 되진 않았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사랑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한다. 하지만 이뤄진 사랑이 아닐지라도 이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어릴 적 할머니는 당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다. 할머니는 소녀로 돌아간 듯 수줍은 얼굴을 하였고 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처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너무 지워내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 보는 것도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1089호 학보를 읽고

더 나은 우리학교를 향한 변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우리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준비했다. △무전공 입학 제도△인적 드문 학내 공간 활용△천원의 아침밥 등을 다룬 외대학보 1089호에선 우리학교가 직면한 변화와 우려 지점을 짚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년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위치한 인적 드문 학내 공간의 활용을 다뤘다. 개강 후 캠퍼스 곳곳은 봄비지만 설캠 본관 뒤편의 미네르바 광장과 본관 5층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한적하다. 외대학보의 취재를 통해 학교에 해당 공간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총학생회 또한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행사 장소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하지만 꾸준히 지적돼 온 학내 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한다면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간이 충분히 활용돼 학내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4년에선 우리학교에서 검토 중인 무전공 입학 제도를 다뤘다. 무전공 입학 제도는 대학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면 수험생의 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할 시 신입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점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구성원의 소

손지성(사회·미디어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속감 저하△전공 전문성 감소△특정 학과 몰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또한 학사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관한 안내 및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우리학교가 무전공 입학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 흐름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

5년에선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우리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다뤘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고물가로 인한 △대학생의 교식 결식을 감소△대학생의 식비 부담 완화 △쌀 소비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문제점도 존재했다. 우선 학생임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배식 지연이나 수량 부족과 같은 문제도 있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고물가 속에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외대학보는 지난호에서 우리학교의 변화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외대학보의 건설적인 비판이 우리학교와 학생들이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한다.

1089호 학보를 읽고

2024년 우리학교를 바라보며

외대학보 1089호를 읽는 지금 이번 달의 끝에 벌써 다다랐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어느새 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개강이 낯설고 긴장되는 이유는 여러 변화를 맞이한 학교와의 첫 대면이기 때문이다. 외대학보 1089호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천원의 아침밥△학내 공간의 낮은 활용도를 다루며 새로운 소식과 함께 기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3년에선 학내 공간의 낮은 활용도와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은 분명한 우리학교 공간임에도 담당 부서가 없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운영 소홀에 아쉬움이 남는다.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관한 문제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가 더 심각하다. 외대학보로 인해 새롭게 조명된 설캠의 미네르바 광장과 하늘공원에 더불어 글캠의 공간 활용에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길 소망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다룬 기사의 경우 학우들의 인터뷰를 담아 또래 청년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달된 것 같다. 청년층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4년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를 다뤘다. 외대학보에선 기존 4년제 전공 교육과정의 3년제로 축소되는 점과 본전

공생만 신청 가능한 전공 강의 등 기존 교육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동시에 한동대학교의 긍정적 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학교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무전공 입학 제도가 논의 중인 현 상황에서 학교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 학우들의 혼란과 걱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

5년에선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과정과 현황이 담겨 있다. 4,000원의 조식 가격을 △정부△자치체△학교가 나눠 부담해 학생에게 1,000원이라는 가격에 제공하게 된 것이다. 수요가 많은 만큼 배식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내 자원봉사 동아리와의 협업 등으로 학우들의 원만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외에도 가리의 외국어 간판과 그라벨트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여겨지는 21세기에도 외대학보처럼 다양한 시선에서 문제를 조명하는 이들이 있기에 사회는 다시 하나로 뭉치는 듯하다. 우리학교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호를 작성하였을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 표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학보에 만개한 꽃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서서히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다. 이제 곧 벚꽃이 만개하면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한층 더 산뜻해질 것이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벚꽃과 함께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져다주길 소망한다.

이번 외대학보 1090호에선 이전보다 가볍지만 재밌는 주제들을 많이 다뤘다. 먼저 4면에선 우리학교 전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다른 학교에 비해 협소한 전과 제도를 지적했다. 진출과 전입 인원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과 한 해에 전과에 성공하는 학생 수가 40% 남짓이라는 점을 볼 때 전과 제도를 개편해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발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5면에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해오름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급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강제적인 술자리 문화와 진행이 혼잡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글캠의 총학생회장단이 서둘러 구성돼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7면에선 청년층의 섭식장애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유튜브(Youtube)나 인스타그램(Instargram)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몸에 대한 선망과 몸매에 대한 압박이 만연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많은 청년층, 특히나 여성들이 마른 몸

매에 집착한 나머지 섭식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에 대한 선망을 떨치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12면에선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생인 임지웅 아나운서(이하 임 아나운서)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임 아나운서가 학창시절 어떤 활동을 했으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외대학보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뉴스 및 여러 프로그램에서 열정적인 진행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임 아나운서를 보며 언론계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외대학보는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고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교통사업의 변화△영화산업의 침체△전세 사기 등 우리학교 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기사들이 다수 있다. 꽃 피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외대학보를 읽어보길 바란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일대 사람들~ 다들 개강 파이팅입니다!
휴학한 친구들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길!!

-일대 21-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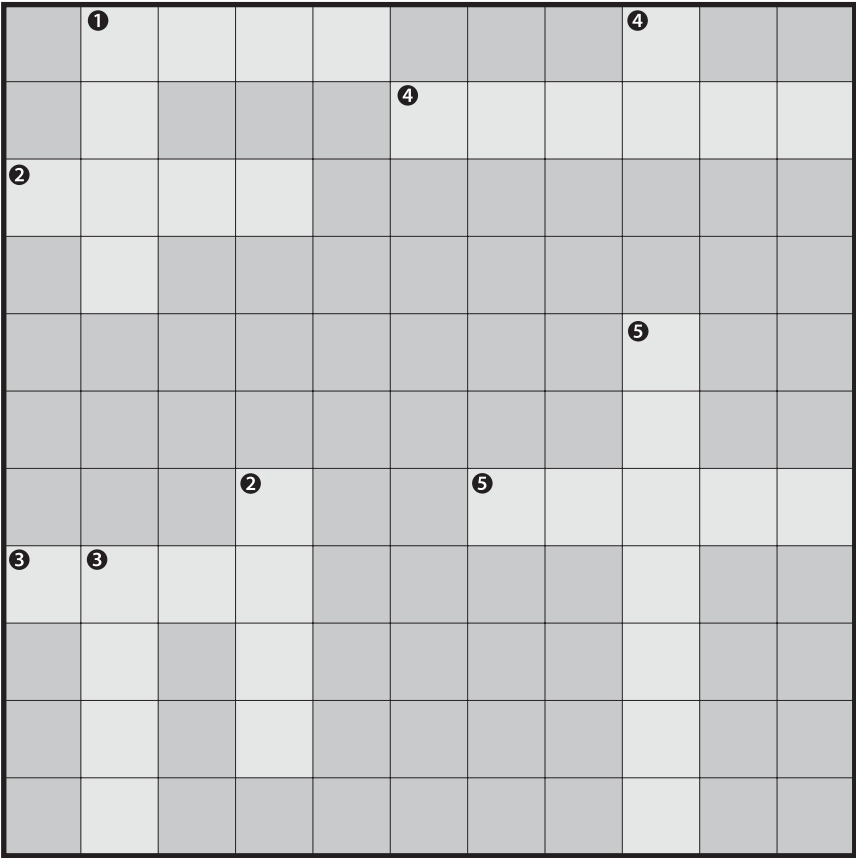
천원의 아침밥 안 드셔보신 분!? 꼭 한 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배고픈 부엉이-

외대학보 파이팅!! 항상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최근 회기동 주변에서 공부를 위해 자취방을 구하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대량의 ○○○○ 피해가 발생했다. (3면 참조)
- 물타 기사단은 종교적·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료 및 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면 참조)
- 이란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5면 참조)
- 이에 지난 1월 27일 서울시는 ○○○○○○라는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8면 참조)
-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 변호하며 ‘○○○○○’ 지적해 (8면 참조)

세로

- 우리학교 ○○○○의 문제점으로 먼저 전과 가능 인원수가 제한적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다. (4면 참조)
- 는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7면 참조)
- 4개 학기 과정인 GMC는 효율적인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온라인과 ○○○○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시스템과 논문·비논문 트랙 과정을 운용한다. (2면 참조)
- 김씨 일가는 은행에 근저당 대출을 받아 회기동 주변 건물을 매매 및 신축한 후 부동산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3면 참조)
- 우리학교 ○○○○○○○○분부는 지난 11일 제3기 진로취업지원센터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 (1면 참조)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AI의 일상화에 대한 단상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AI가 놀랄 만큼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버로봇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뉴스나 영상도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접한다. 언어 통번역, 자율주행, 쇼핑 도우미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AI가 인간의 고유한 사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교육, 상담, 의료, 법률, 예술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영국의 AI 기업인 루미넌스(Luminance)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 간의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한다. 챗GPT는 미국 의대생·의사 지식을 평가하는 의사면허시험(USMLE) 테스트도 통과했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및 의학 영역에서도 AI의 도움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당시에는 머나먼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아 AI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의 이론가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매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신체와 감각 기관을 확장하는 매개체로 파악했다. 맥루한의 견해에 따르면 책은 시각의 확장이고, 라디오는 청각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다양한 기술로 넓혀보면 의복과 주거는 피부의 확장이고, 바퀴는 발의 확장이며, 전화회로는 인간 중추신경계의 확장이 된다.

맥루한의 매체 철학을 지금에 적용하면 AI 역시 인간의 지성과 인지능력의 확장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매체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증폭시켰다면, AI 기술은 인지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과정 및 창의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트 생성, 코딩,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영상 합성 등 인간의 고유한 정신 활동의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는 AI가 단순한 복제를 넘어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성(知性)’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AI 일상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일까? 수많은 언론과 관련 기사에서 AI가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AI를 통한 미래의 직업 시장의 변화가 특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개인 차원으로 주목하고 대응해야할 부분을 언급하고 싶다. 바로 AI를 자신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AI의 보조를 받는 것이다. AI를 통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인간은 상대적으로 창의적이며 전략적인 과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문제 해결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에 AI의 분석과 제언을 활용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AI는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최근에 참석한 어느 강연에서 “사람은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대체된다”는 발언을 들었다. 이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대신하는 부분도 커지겠지만, AI 역시 인간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서 작동한다. 즉,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AI 리터러시를 기르고 AI 협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AI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AI가 지닌 위험성을 경계하며, 인간만의 통찰과 지혜를 발휘한다면 AI 시대에 당당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욱(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정보 전달과 진행의 전문가

임지웅 아나운서를 만나다

임지웅(사회·미디어 07) 아나운서(이하 임 아나운서)는 KBS 48기 공채로 입사해 현재 '6시 내고향'의 패널(panel)이자 KBS 뉴스광장의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임 아나운서는 'YTN 뉴스출발'과 '해 불만한 아침 M&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으며 진행자로서 왕성한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 MBC 아나운서와 YTN 앵커를 거쳐 KBS 아나운서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임 아나운서를 만나보자.



Q1.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던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죠. 학교 동기들과 어울리기보단 음악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학교 방송국 FBS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는 항상 성실하게 참여했죠. 주위를 보면 수업을 종종 빠지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엔 재밌는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Q2.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진학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며 아버지와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중 정감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가진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습니다. 이렇듯 아나운서를 희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학교의 진학을 꿈꾸게 됐죠. 우리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우리학교는 이중전공을 통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영어와 밀접한 삶을 살아온 제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언론계에 다수 포진하고 계셨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Q2-1. 이중전공으로 영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나운서로 방송을 할 때 영어를 통역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운서로 일을 하며 외국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사회를 봐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ABU(Asia & Pacific Broadcasting Union)'란 국제적인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중전공을 통해 배운 영어 실력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영어로 사회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미국 시민권을 지닌 이중국적자란 배경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어 선생님이시고 저도 카투사(KATUSA)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어실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신에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해당 전공 소속의 교수님 중 절반 이상이 원어민 분이셔서 수업은 당

연히 원어로 진행됐고 그 덕분에 영어 실력도 향상된 것 같아요.

Q3.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진로상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학극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정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란 것을 깨닫고 가수로 진로희망을 바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수를 하기엔 애매한 실력이란 생각에 막연히 방송인의 꿈만 가지게 됐어요. 이후 학업 성취를 통해 갈 수 있는 방송인의 길이 아나운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가진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Q3-1. 재학시절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속도는 느릴지언정 언론인이란 방향성은 일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 취업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할 수 있을까?'란 고민도 생겼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사라진 프로그램을 찾아볼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특히 김성주 아나운서님의 방송을 많이 찾아봤고 배경지식을 늘리기 위해 책과 영화도 열심히 봤습니다. FBS에서의 활동들이 만들어준 기본기 덕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며 다녔던 학원에서 준비가 잘됐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노래하며 다져진 발성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군악대△밴드부△합창단 등의 경험이 무대의 익숙함과 함께 대중 앞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Q4. 재학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실제 현장에 가서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팀을 꾸려 약제시장 취재도 했고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장애인단체도 방문하며 기사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엔 이문동 재개발이 부진할 때였는데 재개발 현장에 가서 취재한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마치 스스로가 언론인이 된 것처럼 많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후 언론인이란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Q5. 아나운서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KBS에 합격했던 당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가장 들어가고 싶던 곳이기도 했고 처음 아나운서 시험을 봤던 곳이었어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지 한 달도 안됐을 때여서 당연히 떨어졌지만 이후 여러 도전 끝에 2021년에 합격했습니다. 먼길을 돌아와서 그런지 더욱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던 전주 MBC는 아나운서 준비 6개월 만에 합격했기에 준비가 거의 안 됐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한 나머지 뉴스를 랩처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업무적인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방송사고 등을 좀 알짜 경험했던 것 같아요.

YTN 입사 순간 역시 기억에 납니다. 2019년 11월경 아나운서를 포기하려던 찰나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원한 곳이 YTN이었어요. 그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는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4개월 후에 연락이 와서 운 좋게 입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YTN 덕분에 것 같아요.

Q6. 생방송을 진행하면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는지와 당시의 대처방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전주 MBC에서 근무할 당시 저녁에 진행하는 생방송 일일 프로그램에서 송출 영상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바빠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뒤의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라고 능청을 떨며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동안 제작진은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이를 마무리 보아 아나운서에겐 뻔뻔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인 만큼 제작진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나운서만 잘하면 그 실수가 티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뻔뻔함은 생방송의 돌발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나아가 아나운서로서의 역량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7.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평상시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송

을 하는 과정에서도 평소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각△언어습관△행동 등이 불시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일상 생활에서도 생각을 깊게 하거나 바른 말을 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실제 방송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Q8.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중립성이 될 수도 있죠. 자칫 너무 감정이 앞서면 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의 발언이나 태도를 계속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9. 앞으로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을 하는게 당연했고 그래서 아나운서란 직업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아나운서로서 유명해지거나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같이 일하는 제작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Q10.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땐 아나운서만의 정해진 목소리 혹은 표현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KBS에 들어온 후 아나운서는 딱히 정해진 상이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나운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다르거든요. 그렇기에 꼭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편견을 갖기보다 스스로의 강점이 뭔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돼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오니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바로크레디트대부



서민의 금융을

ALL BARO